

<하나님의 섭리>

(MOSE)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모세의 섭리>

성경이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인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 대한 섭리와 Message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1. 모세는 어떠한 자인가?

- ① 이스라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애굽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
- ② 애굽의 왕(파라오) 투트모세 1세의 딸 공주인 ‘하첵수트’의 양자로 입양된 자.
- ③ 호렙산 광야에서 40년 양치던 목동.
- ④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독립된 한 민족을 형성케 한 자.

(창15:13 「Ab!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정한 자)

2. 왜 이름을 모세라 불리웠는가?

Mose(건져냄, 태어남).

‘모세’라 이름을 지은 사람은 공주였다.

공주가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 한 것이 물에서 건졌기 때문일까?

공주가 모세라 이름한 것은 가문의 내력에 의하여 왕자의 직위를 위해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모세란 이름은 일반적인 히브리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와 동등한 위치로 삼아 아들로 맞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문의 계보 참고)

3.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 ① 왕자로서의 40년.

(하나님은 모세를 왜 왕자로 삼아 주셨는가?)

신의 아들이라는 바로 왕이 노예로 있는 히브리 노인을 왜 만나 주었을까?

당시 애굽의 왕은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대면하거나 더나가 식민지 백성인 히브리인이 만날 수 있는 또한 만났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다.

80세의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안보내면 재앙이 올 것이라며 그것도 몇 번씩이나 찾아와 요구하는 모세를 왜 그냥 두었을까?

이때의 왕은 모세와 함께 살았던 “투트모세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이었다.

왕의 아버지도 양자로 와서 왕이 되었고 모세도 양자로 와서 왕자였다.

모세는 왕자였고 삼촌이었기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왕 “아멘호텝 2세”가 모세를 만나 주었고 살려둔 것이다.

그러한 바로 왕이 그동안 삼촌이며 왕자이였기에 선의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출10:28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이젠 내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후에 사용하시고자 공주를 통해 왕자의 신분으로 살게 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② 목동으로서 40년!

40세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고,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처가의 양치기로 생을 마쳐야 할 운명이었다.

그러한 생각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 왔던 것이다.

양을 치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일여 년을 머문 곳. 호렙산(시내산)이다.

200만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쉬어야 하는 곳.

물이 있는 곳, 더위와 추위를 피할 곳. 독충이나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곳.

모세는 40여년을 양을 치면서 그곳의 지리와 환경 모든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나님은 4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위해 모세에게 양을 치면서 그곳 지리와 환경을 알게 하셨던 것이다. 이것 또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③ 선지자로서의 40년!

80세의 모세는 힘없고 기력이 쇠한 인생 말년의 노인이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갇혀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세 활발할 때 쓰시지 않으시고, 80세 힘없는 인생 말년에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고난을 겪다가 4세대 만에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430년 만에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한 때였기 때문이다.

왕자로서 40년, 목동으로서 40년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에게는 소망과 인생의 목표가 생겼던 것이다.

힘없고 기력이 없는 한 노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자가 되었던 것이다.

양을 치던 목자가 이제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던 것이다.

막대기로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던 자가, 이젠 능력의 지팡이로 백성을 Satan으로부터 보호하는 자가 된 것이다.

모세는 애굽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그리웠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화려한 생활도 생각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40년은 고독과 외로움의 생활이었다.

이제 모세가 바라보고 의지해 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연단이라는 고난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할 때 사용하신다.

왕궁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인생의 고난을 모두 체험한 자이다.

<빌4:12 내가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 그 모습 그대로 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4. 모세가 왕자를 포기하고 왕궁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가?

모세를 양자로 삼은 여인은 당시 바로 왕 “투트모세 1세”의 딸 공주 “하첵슈트”이다.

공주는 그들의 관례에 따라 왕자인 오라비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하였고 부왕이 죽고 왕이되자 슬하에 자식이 없던 “투트모세 2세”는 친족에서 양자를 삼았는데 그가 “투트모세 3세”이다.

왕위에 오른 오라비인 남편은 통치 10년만에 죽었고, 양자로 삼은 왕자가 어려서 왕비인 어머니 “하첵슈트”가 섭정을 하다가, 자신이 친히 왕이 되어 22년간 통치하고 양자인 “투트모세 3세”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다.

이때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사건으로 왕궁을 떠난 5년 후였다.

(모세와 투트모세 3세의 나이 차이는 대략 5-10년 정도로 모세가 위였다)

왕자인 모세가 왕궁을 떠나야 했던 것은 모세가 애굽인 죽인 사건을 빌미로 왕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여긴 “투트모세 3세”와 그를 옹호하는 귀족들과 함께 모세를 제거할 기회로 삼았을 것이고, 모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하나님 섭리를 볼 수 있다.

첫째. 모세가 왕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만약 왕이 되었다면?

성경에 바로왕 딸이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기에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고 하고 있다.

애굽 공주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말을 알았을까?

공주의 아버지인 파라오의 이름은 “투트모세 1세(Thutmose)”, 그 아들 “투트모세 2세”, 양자인 아들이 “투트모세 3세”로 불려진다.

공주가 양자로 삼은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 지은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행7:22 모세는 애굽 학술을 다 배웠고 뛰어난 언변과 지도력을 갖추었다’라고 하고 있다.

왕으로서도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역사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17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파라오가 “하셉수트(Hatshepsut)”라 한다. 만약 친족을 양자로 삼은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된다면 친족들의 힘에 의해 이 여인의 권력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키운 양자인 모세가 왕이 된다면 그 권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모세가 왕궁에 있었다면 자기의 아들로 키운 모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 권력에서 제외시켰다.

만약 모세가 왕이 되었다면 출애굽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배려와 보살핌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더나가 미개척지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한 섭리에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5. 출3: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서도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가 3:9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오라>며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출 3: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 출 3: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 총리된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300여년이 지나 전쟁으로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제18왕조 아흐모세 1세) 억압으로 고통이 시작되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었지만, 그 응답은 130년이 흐른 후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치 아니하셨는가?

3:7 부르짖음은 일반적인 ‘호소와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알고..)

3:9 부르짖음은 <내게 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시킨 간구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한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진실된 심령으로 부르짖는 외침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한 고통이 오자 온전히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역자들이며, 직분과 쓰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호라’라는 ‘때’를 준비하여 놓으셨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 부름을 받았으며, 지금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원망, 불평, 불만 속에서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왕궁과 광야에서 얻은 신앙에서 온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헤어져 있던 형 아론을 동역자로 함께해 주셨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선지자이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연단의 고난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재앙들을 일으키고,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무너뜨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같은 동역자를 붙이시어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시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 준비 중인 왕궁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사역의 시작인 애굽에 있는가?

사역의 중심인 시내산에 있는가? 사역의 종착지인 가나안에 있는가?

나의 사명과 위치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한다.

<애굽 왕들과 모세와의 관계>

출애굽기 1:8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시기는 애굽의 제 18왕조의 통치시기를 가리킨다. 그 이전에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는 애굽의 북동쪽에서 온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Hyksos, 애굽 15·16·17왕조)였다. 힉소스 왕조는 타민족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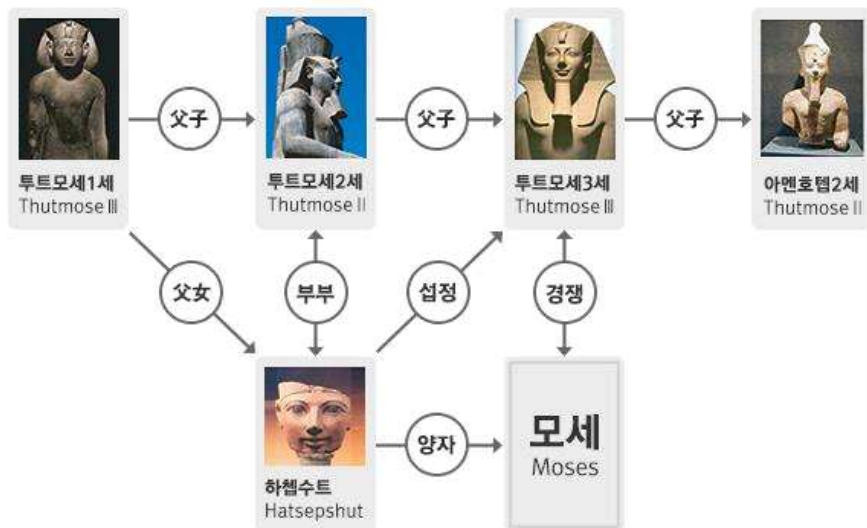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온지 약 300여 년이 지난 주전 1580년경에, 애굽 제 18왕조의 아흐모세 1세(Ahmose, 주전 1584-1560년)에 의해 무너졌다. 제 18왕조는 순수한 애굽 본토인으로서, 이방인 힉소스인의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요셉의 모든 업적까지 말살하고 토착왕조의 지배를 확립하여 나갔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 18왕조 가운데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Thutmose I, 주전 1539-1514년)이다. 투트모세 1세는 강한 탄압 정책을 펴 히브리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노동을 시켰다. 심지어는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나일 강에 던져 모조리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까지 강행하였다.

이러한 때 레위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모세를 나일 강에서 건져 낸 바로의 딸이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인 하첵수트(Hatshepsu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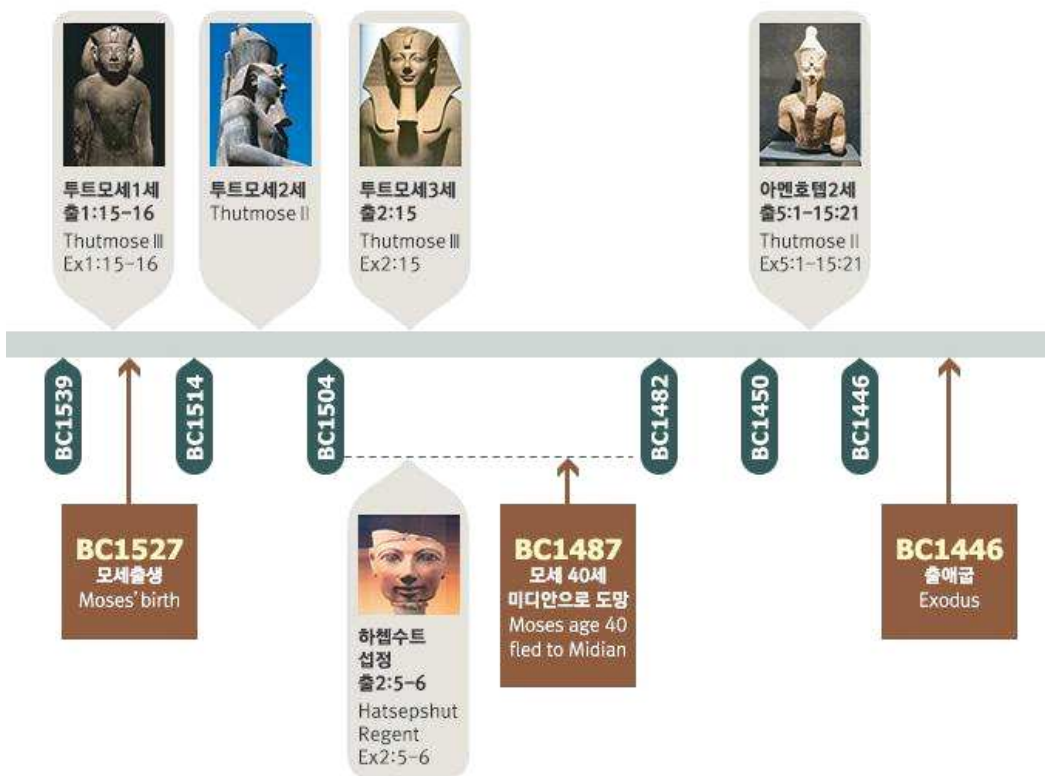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름이 밝혀진 이집트 파라오들의 숫자는 170여 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파라오가 바로 하첵수트이다. 하첵수트라는 이름 자체가 “여성들 중에 가장 으뜸인 자”라는 뜻이다. 하첵수트는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하였으나 투트모세 2세는 10년을 통치(주전 1514-1504)하고 후계자 없이 요절하였다. 투트모세 2세가 양자 삼은 투트모세 3세가 왕위를 계승하지만 당시 투트모세 3세는 불과 9-10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고 왕위계승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하첵수트가 섭정을 하게 된다. 훗날 하첵수트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 22년간 통치하였다(주전 1504-1482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 부르심을 받던 주전 1447년 모세는 80세였으므로 그는 주전 1527년에 태어났다. 하첵수트가 왕위에서 물러난 것은 주전 1482년으로 모세 45세 때이다. 모세가 40세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므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였다. 이 때문에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 만약 모세가 5년만 기다렸다면 하첵수트의 아들로 자란 그는 하첵수트가 물러난 후 저절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다. 당연히 하첵수트의 양자였던 투트모세 3세와 모세는 왕좌를 사이에 둔 경쟁관계였을 것이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



<http://www.abrahampark.com>

투트모세 3세 후에 아멘호텝 2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 전에 있었던 10대 재앙을 모두 겪은 왕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잃게 된다.



<http://www.abrahampark.com>